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4년 2월 23일(주일) 제988호

김사무엘 선교사 10주기



“선교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

내 신학이나 교육이나 인품을 세우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분으로 전하는 데 쓰이는 씨앗으로 보냄 받은 것이기에 죽음이 선교의 첫째요, 전부다.”

-저서 <왕의 초대>에서-



2만 8천 여 성도가 참여한 의식조사 결과는?

“온누리교회는 젊은 교회, 예배·설교가 좋다”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

» 4-5면



문화 - 화제의 인물

» 8면

‘나는 크리스천
입니다’
파워블로거
김민규 성도



탐방-순교지를 찾아서

» 9면

서울에서 만나
는 순교지



성지순례와 폭탄테러

비보가 전해졌다.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이집트 현지시각) 터키~이집트~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성지순례를 떠난 충북 진천 중앙교회 성도들이 폭탄테러를 당했다. 한국인 3명(성도1명, 가이드 2인)과 현지인 2명(운전기사, 테러범)이 사망했다. 2004년 이라크에서 피랍돼 살해된 김선일 형제와 2007년 샘물교회 봉사팀 피랍사건 이후 또 다시 전해진 비보에 기독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테러를 저지른 단체도 문제지만 기독교의 무리한 종교 활동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연 우리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안전한 성지순례는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질문을 구했다.

/ 편집자 주

| 특별기고 1 | 이번 사건 어떻게 해석해야하나



도육한 목사
(2천선교본부장)

한국교회는 또 다시 큰 아픔과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다. 성지순례단으로 떠난 선량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자폭 테러로 세계인의 가슴에 큰 슬픔을 불러 일으켰다.

사랑하는 성도를 잃고 큰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의 고통은 모두의 아픔이요 슬픔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속히 아픔을 치유하고 고난 중에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아픔과 상실감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악플러들의 언어적인 테러를 접할 때 슬픔을 금할 수가 없다.

왜 이런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나

답이 단순하지 않다. 이번처럼 지배 권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일으키는 정치적 목적의 테러가 있고, 시아와 수니파 사이에 일어나는 해묵은 이슬람 종파간의 전쟁이나 테러들도 일어난다.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종족 전쟁의 양상이 있는가 하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건설을 도모하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가진 테러집단의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악행이 신의 이름으로, 성전(지하드)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UN도 인권단체도 해결이 쉽지 않는 반인륜적인 숙제이다. 이러한 다양한 권력의 충돌 사이에서 희생되는 선량한 사람들의 수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살림이 더욱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열방과 족속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전쟁을 그치고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 인간의 모든 욕심과 악을 내려놓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인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둘째, 무슬림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소수의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는 과격한 원리주의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선량한 보통사람들일 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야 할 우리 이웃이다. 셋째는 해외사역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간 2만 5천 명 이상의 한국 성도들이 성지순례와 아웃리치 등으로 중동 인근 5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어느 정도 위험이 감수되어야 하는 지역들이 포함되어있다. 복음의 특성상 우리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때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위험이 기다리는 곳에도 가야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도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온누리교회는 해마다 3천 명 이상이 해외로 단기사역을 떠나는 교회이다. 그 동안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지켜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아무런 어려운 일 없이 섬기고 나누는 사역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다. 동시에 가능하면 외교부가 정한 여행관련 지침

들을 지켜 지역들을 선정해 왔다. 성지순례나 해외아웃리치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구하면서 또한 최선을 다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선교본부나 전문기관들의 자문을 받아 해외사역을 기획할 것을 권한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국교회가 위축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너무 큰 아픔을 당함과 동시에 너무 큰 비난에 직면하면서 위축당하고 스스로 슬그머니 뒷걸음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뜻하지 않게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사건도 있었지만, 선한 일을 행하다 당한 고난에 자부심과 확신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죄인처럼 비굴해지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하나님 명령 앞에 흔들림 없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이런 희생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는 이 땅이 되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

“희생과 아픔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

| 특별기고 2 | 안전한 성지순례 없나?



류모세 선교사

2월16일 오후 2시40분. 필자는 성지순례팀과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나사렛을 조망하며 이스라엘 평야를 달리고 있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도로는 유난히 직선으로 뻗어 있어 ‘싸르젤’(길을 재는 자)이라고 불린다. 직선으로 뻗은 도로에 멋진 경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맨 뒤쪽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 한분이 버스 앞으로 뛰어났다.

“이집트에서 한국인관광객을 상대로 폭탄테러가 일어났네요.”

버스 안에 있던 우리 모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집트에서 폭탄테러가 일어

난 지역이 불과 3일 전에 지나 온 곳이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날 저녁 우리는 성지순례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기도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주 평균 2차례씩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났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커피숍, 피자집, 레스토랑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모두 타깃이었다. 집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소도 안전한 곳이 없었다. ‘폭탄 사이로 막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살벌했다. 그럼에도 테러로 인해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물론 히브리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일어난 테러로 한국인 유학생 3명이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말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다.

이집트는 장기 집권하던 무바라크 정권이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열풍에 의해 강제 퇴진 하면서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다. 관광산업이 주 수입원인 이집트 경제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었다. 치안 유지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다행히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성지순례 코스(이집트~이스라엘 출애굽 여정)가 재개되었다. 위험 구간은 최대한 피하고 버스에 현지 경찰이 동행하면서 성지순례는 이어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낯설다. 관광객을 직접 겨냥한 테러는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제 이집트를 찾는 여행객은 없을 것이다. 이집트가 바로 이번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세력이 현정부에 입할 수 있는 최고의 타격이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다. 어이없는 희생이다. 자신들의 정

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철저한 사전준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안전한 성지순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한국인들이 성지순례 코스로 선호하는 지역은 대부분 치안이 좋지 않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다. 현지 전문가는 물론 필요하면 현지경찰 동행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지순례를 갈 나라의 정치 상황, 테러발생 여부도 살펴야한다. 이 모든 것을 체크했다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한다.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는 일정을 보내야한다. 성지순례팀뿐만 아니라 교회와 동역자들도 계속 중보해야한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눅 5:27~39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죄인을 품고 안아주는 은혜를 베푸십시오.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이면에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돈, 지식, 외모, 직업, 가문 등을 내세워 차별합니다. 심지어 종교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적 울타리로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은혜를 베풀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오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택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적 울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 규례를 지킴으로써 죄를 짓는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식탁은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식탁에 참여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식탁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식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 가운데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당시 종교적 엘리트들에게 차별받는 세리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어부들 중에서, 두 번째 제자는 세리들 중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사람들은 종교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서는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셨습니

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고, 레위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식, 로마식,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비난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외된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요, 동족들의 혈세를 강탈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세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중에서 제자를 선택한 것은 그들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관념과 종교적 울타리로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하나님께 배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동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민족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리들만큼은 하나님께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종교적 엘리트의식 주의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29절).

최초의 맞춤형도집회가 세리 레위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대상은 세리들입니다. 동질집단이 모였습니다.

세리들은 공동체 의식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세리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당시 종교적, 사회적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이 모여 있는 곳을 쓰레기가 가득한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세리와 같은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부감이 든다면 종교적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동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도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우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면에 차별의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했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 규례를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고, 식사를 함께하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열심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시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언제나 안아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끌어 안아주십니다.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행동이 바로 포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먼저 끌어안아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목에 안고 갔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은 첫째 아들은 집안 동생을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끌어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이 정한 율법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품고 계십니다. 종교적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

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와 종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33절).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비방했습니다. 당시 금식은 종교적 엘리트의 중요한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기쁨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34-35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이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종교적 울타리로 사용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적 규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규칙을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핵심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웬만한 실수와 잘못도 용납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기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13면에 계속)



온누리교회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

1. 교회만족도와 신앙생활
2. 성도들의 신앙의식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누리교회는 30~40대 성도가 주를 이루는 젊은교회다. 성도의 평균연령 42.8세.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다. 그 중에서 예배가 가장 좋다고 답했다.

79.4% 성도가 일대일 양육을 받았고, 그중 32.1%가 일대일 양육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 성도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큐티를 하고 있었고, 순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 중심의 일대일과 큐티를 강조하는 온누리교회 양육철학이 그대로 묻어난 결과다.

온누리교회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장년, 대학청년, 중고등부, 교역자, 타교회 목회자 및 여론선도층 27,888명을 대상으로 전교인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신뢰도는 ± 95%다.

이번 전교인 의식조사는 온누리교회 성도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는 동시에 교계 여론을 취합해 온누리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의식조사 결과는 제2기 온누리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교회는 젊은교회, 예배가 가장 좋아”

당회서기 양유식 장로 인터뷰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입니다”

—의식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일종의 건강검진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더불어 온누리교회가 지역과 사회, 국가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제2기 온누리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와 성도, 교계가 소통하는場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온누리교회는 30~40대(54.7%)가 주를 이루는 젊은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절반이(50%)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중에서 예배가 가장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성도 절반(50%)이 순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고, 성도 대부분이(79.4%) 일대일 양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대일 양육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성도(31.2%) 비율도 높았습니다. 성도 절반이상이(53.5%)가 일주일에 3회 이상 큐티를 하고 있었고 순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아쉬워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목양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과반이 넘는(59.4%)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목사의 심방이나 상담을 받아 보지 못해 아쉽다고 답한 비율이 19.4%나 됐습니다. 또 온누리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더욱 힘을 쏟아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타교회 목회자 및 여론선도층은 향후 온누리교회가 보완해야 할 사역분야로 사회적 책임(25.2%)을, 선교분야는 사회선교(9.14%)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2기 온누리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더욱 역량을 모아야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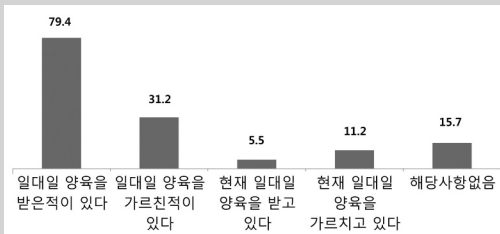
—의식조사 결과 어떻게 활용됩니까.

“전교인 의식조사는 교회와 성도, 교계의 여론을 듣기 위한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신앙의식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더불어 제2기 온누리교회가 집중해야 할 사역이 무엇 인지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 주시는 비전과 성도와 교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2기 온누리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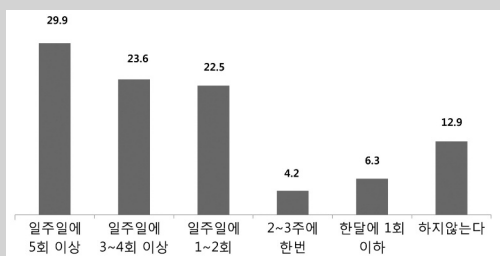
/ 대담 김남원 부장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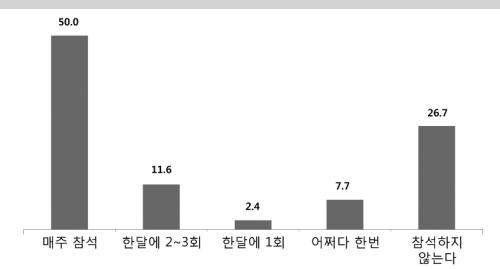
일대일 양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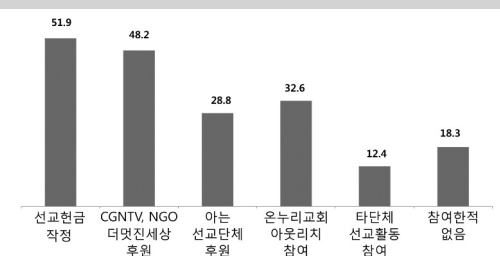
주 평균 큐티 빈도



순예배 참석 정도



1년내 선교 참여 경험



79.4% 일대일, 77.7% 선교 동참

일대일 양육을 받거나 가르친 경험이 있는 성도가 79.4%, ‘현재 받고 있는 성도가 5.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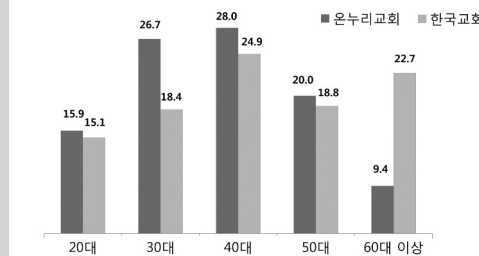
큐티는 성도 10명 중 3명(29.9%)이 ‘일주일 5번 이상’ 하고 있었다. 이어 ‘일주일 3~4번(23.6%)’, ‘일주일 1~2번(22.5%)’, ‘2~3주에 1번(4.2%)’ 등의 순이었다.

순 예배에는 응답자 절반이(50%) ‘매주 참석한다’고 답했다. ‘참석하지 않는다(26.7%)’, ‘한 달에 2~3번 참석한다(11.6%)’ ‘어쩌다 참석한다(7.7%)’ 등의 순이었다. 이 결과에 온누리교회 양육철학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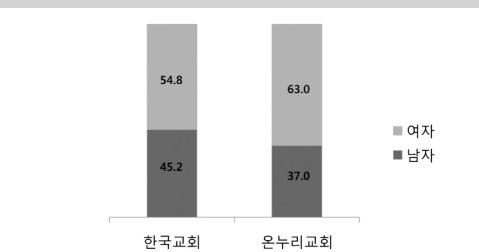
‘최근 1년 내 응답자의 77.7%가 다양한 형태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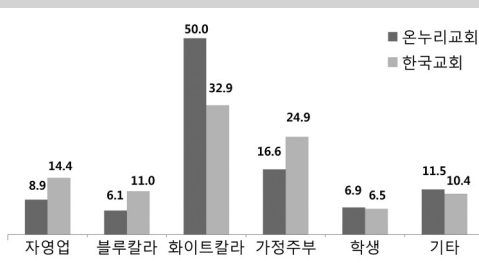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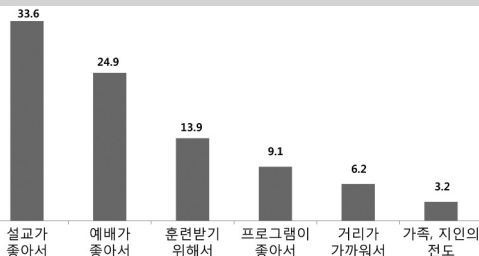
성별분포(장년+대청)



직업별 분포



온누리교회 선택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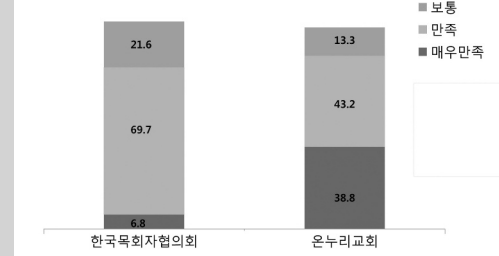
평균 42.8세, 성도 절반 전문직

연령분포는 30~40대 층에서 한국교회 대비 각각 8.3% 포인트, 3.1% 포인트 높았다. 반면 60대층은 한국교회 대비 13.3% 포인트 낮았다. 이는 온누리교회가 젊다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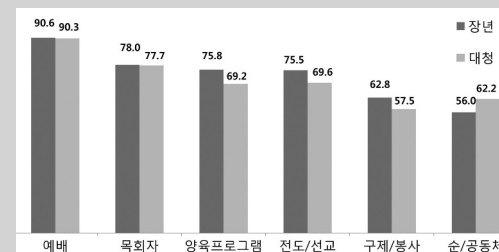
장년과 대청을 합한 성별 분포는 남자 37.0%, 여자 63.0%로 한국교회 대비 남성이 8.2% 낮고 여성은 8.2% 높았다. 직업군을 한국교회 전체와 비교해 보면 자영업, 블루칼라, 가정주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화이트칼라는 50.0%로 한국교회 32.9% 보다 17.1% 많았다. 온누리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설교가 좋아서’가 33.6%,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가 24.9%였다.

교회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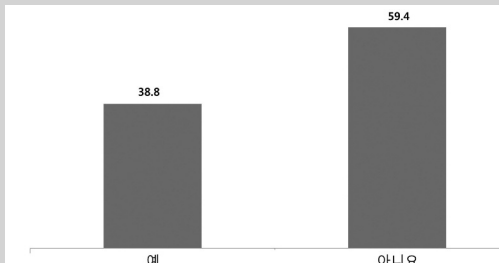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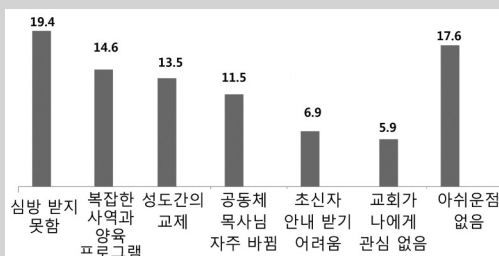
측면별 만족도



교회로부터 돌봄 경험



교회의 아쉬운 점



만족도 높지만 목양 아쉬워

교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82%)가 높았다. 한국교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한 교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비교할 때 5.5% 높은 수치다.

측면별로는 ‘예배(말씀, 찬양 등)’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90.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목회자들의 섬김과 리더십(78%)’ 등의 순이었다.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9.4%였다. 성도 19.4%는 ‘목사님의 심방을 받지 못함/상당·나눔 기회 부족’이 아쉽다고 답했다. 목양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 사랑하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신임목회사관학교
6명 수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6명의 신임 교역자가 눈물로 고백했다. 지난 19일 서빙고 순형홀에서 신임목회사관학교 수료예배를 드렸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사역에 대한 기술이나 노하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권면했다.

신임 교역자들은 지난 17일부터 2박 3일 동안 온누리교회 핵심가치, 영성, 사역, 교회론과 목회철학 등을 배웠다. 두란노와 CGNTV도 탐방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신임목회사관학교 수료예배, 신임교역자 명단 채기석 전도사, 김도균 목사, 홍기완 전도사, 유정훈 목사, 박대원 전도사, 홍성인 목사.

헌금할 때, 인적사항 반드시 기입하자

성도 A씨는 교회에 연말정산 영수증을 요청했다. 낭패를 봤다. 현금 하면서 인적사항을 기입하지 않아 내역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직원의 도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긴 했지만 과정이 매우 복잡했다. 성도 A씨처럼 현금하면서 인적사항을 기입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성도들이 많다. 교회 재정국 직원들은 매년 연말정산 기간이면 인적사항을 기입하지 않은 성도들의 현금내역을 찾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현금할 때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입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헌금할 때 이름,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자.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
도 마찬가지다. 문의: 02-3215-3202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차세대 패션집회, 올해도 'Never stop'

대청, '희망교복나눔'

대학청년부가 50일 기적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청년들은 희망 담은 교복과 책을 선물하기 위해 50일 동안 기도하며 저금통을 채웠다. 지난 16일 저금통을 수거해 서울시 8개 초

등학교의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한부모가정 자녀들에게 교복과 책을 선물했다. 희망은 덩이었다.

교복과 책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다. 온누리교회에 큰 감

동을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대학청년부 매년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희망코리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 박잎새 기자 leaf@onnuri.org

3월 1~2일, 유니클로 악스홀

청소년들의 예배축제 패션(Passion) 집회가 오는 3월 1일과 2일 광나루역 유니클로 악스홀(Ax hall)에서 개최된다. 첫날은 ‘패션나이트(Passion Night)’, 둘째날은 패션 집회가 진행된다.

강사는 노희태 목사(차세대본부장)와 박승재 목사(서빙고 파워웨이브)다.

올해 패션집회 주제는 예바다. 대상은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들이다.

문의: 안민경 간사(3215-3523)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우리아이 창의력
쑥쑥 키운다

청년부
'Wake up Korea'

창조과학회 청소년 특강

한국장조과학회에서 오는 3월 1일 (토) 청소년을 위한 특강을 한다. 영어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학습법, 창의, 비전, 진로설계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이어진다. 장소는 도곡동 숙명여자고등학교 운유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 010-9750-7100 택희숙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매년 삼일절에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올해는 2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동체와 홀리스타에서 나눈 기도제목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인다.

3월 1일, 오전 6시 20분 양재 기쁨
홀에서 'wake up Korea' 청년부흥집
회가 열린다.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문제와 더불어 북한을 위해 합심기
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박윤희 기자

축하합니다

2월 세레자

성명	생년월일 (부도입)	성명	생년월일 (부도성명)	성명	생년월일 (부도성명)	성명	생년월일 (부도성명)	성명	생년월일 (부도성명)
■서빙고		김상호	850309	정지혜	850430	■대청		뽕피	800612
구봉호	860423	김승기	880227	▷ 유아		《하브》		왕피리	860701
김환성	760301	성수원	860301	김가는	120423	오홍선	911125	지소피	821019
박재형	731230	송지혜	890919	김동호	박희영	▷ 입교		짚라	860101
이주연	840811	신정은	800528	김다인	121128	천인애	930817	첸다	900207
▷ 유아		임민지	880327	김대을	서미진			태위	810923
고수현	120320	▷ 유아		김원태	120601	《요셉》		▷ 유아	
고석목	김나리	오성근	121029	김진민	김지영	구지웅	840721	김세령	120831
권유나	130423	오형석	정화정	김은태	120601			김태인	허정미
권용범	이지연	이하빈	130913	김진민	김지영	■부천			
김서하	120922	이지원	하주형	김은서	120810	▷ 유아		■수원	
김노승	김은호	한지호	130526	김동진	이현주	양희강	120401	▷ 유아	
박준서	130120	한재준	하주현	박서은	130603	양성순	임태경	김태백	130102
박순기	강정선			박광홍	심우정	전하람	120218	김은우	김슬기
신재인	121211	■양재		변지혜	130809	전성균	윤지혜	심은우	120826
신한글	정규선	강호은	940806	변광호	김일정	▷ 입교		심은별	신동은
신수연	121114	곽대규	541107	임성아	130319	정광호	960507	전하람	110915
신주열	김기혜	김수안	660525	임현준	조숙련	황덕영	790102	전신익	신수진
이다연	130913	변영희	550116	조은우	130605			▷ 입교	
이상승	이교은	오영배	590326	조성철	윤선민	■김포M센터		오인우	941024
		이정민	821105	▷ 입교		괴셀	860101		
■열린예배		장유근	770115	김보람	870213	말린	860110		
김서진	880106	정연주	760328			모니까	900405		

■ 공동체 담당목사 변경 ■

〈서빙고〉	정장환(관악구청)	이창규(노원)	〈양재〉	이정현(안양평촌)	〈수원〉	〈남양주〉
박종길(서빙고)	안광국(양천)	유선식(북노리)	이기진(강남C)	안평복(특별한초대)	김병재(동노리)	조병홍(남양주)
이준호(강촌)	박철웅(영등포구로)	김철진(성북)	김성원(서초A)		전신익(서노리)	
서재범(신용산)	이해영(서대문)	김경훈(중종로)	이동훈(양재)	〈부천〉	이원진(남노리)	
손신국(한강)	노치형(일산)		김종민(분당B)	이기원(민음)	조동욱(북노리)	

평택

2년 동안 한결같이 ‘노방전도’

3월부터는 병원전도 시작 ... “간호사도 전도할거예요”

2012년 1월 결성된 ‘평택 전도팀’.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진 평신도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팀이다.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평택역과 공원 등지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했다. 전도지와 온누리신문을 나눠주며 일대일 전도를 했다. 날씨가 좋든, 곳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직 바람이 찬 지난 20일, 평택 전도팀(박영진, 여경희, 김소정, 박은경, 송미선)과 동행했다.

노방전도 체험이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판 곳을 보거나, 대꾸도 안 한다. 손사래 치며 전도지를 거부하는 사람, 교회 비판하는 사람, 입에 담지 못할 욕하는 사람 까지. 관리원에게 쫓겨 나기도 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매주 전도를 했지? 비결이 뭐까.

이구동성으로 전도에 대한 열정과 훈련의 결과란다. “전도에 대한 강한 의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서빙고까지 가서 전도폭발 세미나 3단계까지 들었어요.”

3월부터 평택전도팀은 지경을 넓힌다. 노방전도뿐 아니라 병원전도도 한다. 평택박애병원 이진호 원장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병원전도를 하게 되었다. 환우들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전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들에게 전도는 어떤 의미일까.

“전도를 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이 배가됩니다. 전도는 일상입니다.”

이 날도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 여경희 성



여경희 성도(왼쪽)와 박은경 성도(오른쪽)가 각각 일대일 전도를 하고 있다. 전도팀은 지난 2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해왔다.

〈3월 목회일정〉

새벽예배 전면개편

3월부터 5시30분
매일 첫날 ‘Holy Start’: 시작을 새벽예배로
매주 토요일 ‘온가족 새벽예배’

예배 세미나

3월16일~4월13일 오후2시 본당
강사: 김영진목사(예배사역본부장)

수요예배

3월5일~4월30일
주제: ‘말씀으로 떠나는 구약여행’
강사: 홍석문 목사(평택 파워웨이브)

OBC 갈라디아서

3월16일부터 오후2시 강사: 박성천목사

화요QT예배 개강

3월11일 오전10시30분 본당



목회칼럼
김소리 목사

실리콘밸리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담은 손재권 기자의 <괴짜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10% 개선하는 것보다 10배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10%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방식을 찾지만, 10배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부터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달에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달나라에 가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면 남들이 시도해보지 않는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게 된다. 달나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이라고 한다.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신다. 때로 그 꿈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 넘는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이다.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꿈을 주셨다. 40년 광야에서 양을 돌보던 모세

에게는 이집트에서 고통 받는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다. 8형제의 막내로 아무도 관심주지 않았던 다윗에게는 민족을 이끄는 꿈을 주셨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후 예배에 더욱 집중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그들은 새벽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겼다.

모세는 아침 일찍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출 34:2). 다윗도 아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침에 기도하였다(시 5:3).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다(창 22:3).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예배를 통해 한 사람이 열 명의 영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다.

밤의 즐거움 VS 아침의 생명

새벽예배의 재발견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10명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새벽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어떨까.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평균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피곤하지 않는 일상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면 전날 밤부터 드라마 시청, 스마트폰 사용, 야식을 끊어야 한다. 밤의 즐거움을 끊어야 아침의 생명이 자라기 때문이다. 새벽은 누구나 깨기 힘든 시간이다. 그래서 적군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시간이다. 새벽에 깨어있다면 사탄의 기습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이 주어졌어도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새벽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지금 평택 온누리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100명의 기도용사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새벽기도: 월~토 오전 5시50분 평택 본당

화제의 인물

파워블로거 김민규 성도



요즘은 키보드만 두들기면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발로 뛰지 않아도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blog, 웹상에 기록하는 일지)를 많이 이용한다.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사람들 ‘파워블로거(많은 사람이 블로그를 찾는 힘이 있는 블로거)’라고 한다.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성도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김민규 성도(前 2천선교 간사). 그는 누적 방문회원 200만 명, 하루 1천여 명이상이 방문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다.

블로그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를 운영하는 김민규 성도를 만났다. 자신이 신문에 소개될만한지 모르겠다며 인터뷰 제의에 손사

레치는 그를 설득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넷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처음에는 제 큐티 목상을 올리려고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떤 분의 요청으로 신앙인들을 도울 수 있는 블로그로 용도를 바꿨어요.”

2009년 블로그를 시작한 김민규 성도는 무작정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이유로 경제블로그, IT블로그, 기독교관련 블로그를 운영했다. 믿음이 없을 때의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방명록에 ‘남편을 위한 전도 자료를 찾아달라’는 글을 남기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큐티 목상내용을 올리는 블로그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블로그 통해 세상에 크리스천 문화 전파되길
누적방문자 200만, 하루 1천 명이상 방문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돕는 도구로 바뀐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개인적인 내용을 빼고 모든 크리스천들을 도울 수 있는 자료들로 블로그를 채워나갔다.

방문객들이 늘어났다. 블로그 운영과 더불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동시에 운영한 것이 도움이 됐다. 올해 1월은 누적 방문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찾아보니 글 하나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요즘 유행하는 ~팡 게임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등장시켜 만든 게임인데 중간에 성경말씀도 나오길래 블로그에 소개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거나 제작자가 돈을 벌려는 목적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댓글을 다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저는 2-3시간씩 공 들여 좋은 의도로 올리는 글이 무조건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독교블로그를 운영하다보니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영적싸움도 많았다. 건강한 크리스천들이 올린 자료보다 이단들이 올린 자료가 많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초점을 맞췄다.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자료들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IT와 기독교를 접목시켜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제가 블로

그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파워블로거 아닌 열심히 하는 블로거

블로그를 운영한지 5년 만에 파워블로거가 됐지만 파워블로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힘들었다. 유명블로거들이 뒷돈을 받고 물건을 홍보하는 등 안 좋은 일이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가 파워블로거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파워’라는 말도 권력처럼 들려 싫었다.

“저는 그저 열심히 하는 블로거로 불리고 싶어요”

그가 글을 쓰는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돈은 받지 않는다. 둘째 제휴를 하지 않는다. 셋째 이단이 아니면 기독교 자료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모두 올린다.

평생 블로그를 운영하며 IT공간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김민규 성도. 그는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공간은 영적전쟁이 심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꼭 봐야 할 영화

‘수상한 그녀’



할리우드 대형 영화 사이에서 한국영화 ‘수상한 그녀’가 선전하고 있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영화 수상한그녀가 7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인기요인이 무엇일까.

칠순 할매에서 꽃처녀로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몸으로 열심히 아들 현철(성동일)을 뒷바라지해 국립대학교수로 키워낸 역적 칠순 할매 오말순(나문희). 어느 날 며느리(황정민)가 말순의 참견과 잔소리에 화병으로 쓰러진다. 가족은 말순을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한다. 이에 말순은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가 방길을 방황하다, 자신도 모르게 ‘청춘사진관’의 불빛에 이끌려 들어가 영정사진을 찍고 나온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일인가. 주름진 할머니에서 스무살 꽃처녀(오두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영화를 빛나게 하는 음악, 카메라, 명대사

아름답고도 슬픈 어머니 모습

오두리는 손자 ‘반지하(B1A4진영)’가 이끄는 밴드에 보컬로 들어가 젊은 시절 꿈이었던 가수가 되어 여러 노래들을 부른다. ‘나성에 가면’, ‘하얀 나비’, ‘빗물’과 같은 추억의 가요들이다. 특히, 오두리가 ‘하얀 나비’를 열창하는 장면에서 젊은 시절, 독일 광부로 파견 간 남편과 사별한 뒤 힘겹게 세상을 이겨내며 아들을 키워내는 장면을 교차하며 보여주는 부분은, 당신의 행복보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이 시대 어머니들의 희생과 회한이 녹아있는 명장면이라고 하겠다.

명품 카메라들도 놓칠 수 없다. 말순에게 뜻밖의 반전인생을 선사하는 ‘청춘사진관’의 사진사는 감독의 전작 ‘도가니’에도 출연한 바 있는 장광이 맡았다. UV의 유세윤도 뜻밖의 장면에서 나타나 관객의 재미를 더한다.

대사도 인기다. “저게 인간이여, 브로콜리여?”,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란다”

백미는 젊어진 박씨가 말순 할머니 앞에 나타나 “야, 타! 후달려?(다리가 후덜덜할 정도로 멋있지?)”다. 자신도 모르게 비명과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

엄마가 그리워지는 영화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어머니, 손자에게는 물주, 며느리에게는 화병나게 만드는 존재인 말순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모습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기자는 7년 전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났다. 주름과 검버섯, 뽀글뽀글 파마머리,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는 마음. 당신은 뽀글과 파마머리를 하셨지만, 딸한테는 예쁜 옷 입으라며 용돈 주셨더랬다. 유학시절, 돈 떨어진 딸이 전화하자 아빠 몰래 비상금을 털어 부쳐주셨더랬다. 비단 우리 엄마뿐이라. 격동의 세월을 지내온 대부분의 어머니들 모습이 이리할 것이다.

“어머니, 감사해요.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 딸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볼 것을 추천한다. 손수건 지참 잊지 마시라.

/ 정현주 기자 joo819@onnuri.org

| 서울에서 만나는 '순교지' |

이번 봄에는 가까운 곳으로 순교성지순례 떠나볼까?

“무엇을 준다 해도 배반할 수 없고, 그분에 대한 의무를 곁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조선시대 천주교 신부이자 한국 천주교회 창설자 중 하나인 권일신이 고문당하기에 앞서 한 말이다.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소중히 여긴 믿음의 선배였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몇 세대에 걸쳐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던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신앙을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 서울 시내에서 찾을 수 있는 순교성지를 방문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기준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순교성지를 방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교자들의 고귀한 신앙을 마주하게 된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절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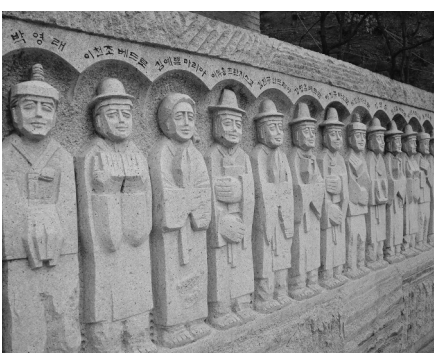
▷절두산은 한강변을 차를 타고 가다보면 높이 솟아올라있어 누에의 머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원래 잠두봉(蠶頭峰)이라 불렸다. 1866년 2월 프랑스군함이 천주교탄압을 문제 삼아 한강을 거슬러 양화진에 진입했다. 심각한 위협을 느낀 대원군은 천주교를 더욱 박해했는데 이것이 병인박해다. 이때 8천여 천주교도들이 잠두봉에서 목이 베어졌고 시신은 한강에 버려졌다. 그 뒤로 잠두봉은 머리를 잘랐다고 하여 절두산(切頭山)이라고 부르게 됐다.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순교 사적지 절두산에는 한국천주교회와 순례성당, 28위의 성인유해를 모신 유해실, 순교자 교육관, 책화비, 야외 전시관이 있다. 1984년 5월 4일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절두산을 방문하였고, 이를 기념하는 요한바오로2세 흉상도 만들어져있다. 절두산 서쪽에는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이 있는데 가까워 두 곳을 모두 방문할 수 있다.

▷주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96-1번지
(문의: 02-3142-4434).

홈페이지: www.jeoldusan.or.kr/

오전 9시30분~ 오후 5시까지 방문 가능,
월요일 휴관. 단체는 방문 2주 전 예약.



■ 서소문밖 네거리 순교성지

▷서소문은 한국천주교회 박해기간 동안 평신도 지도층 신자들이 참수된 순교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아현과 남대문 밖의 철패시장으로 통하던 문으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붐비던 곳이었다. 조선시대의 사형 집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행해졌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이곳은 1416년(태종 16년) 서울의 중요한 형장으로 지정됐다.

서소문밖 네거리 순교 성지는 103위의 성인 중 44명의 성인, 성녀가, 124위 시복시성 추진 대상자 중 25명이 순교한 한국 최대의 성지다. 형장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서소문 공원 안에 순교자 현양탑을 제작하여 1999년 정진석 대주교의 집전으로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서소문밖 네거리 순교성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순교 선열들의 신앙과 용기를 이어받은 장소다.

▷주소: 서울 중구 의주로 서소문공원
(문의: 02-312-5220). 매주 월요일 휴관.



■ 당고개 순교성지

▷당고개 성지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이틀 동안 천주교 신자 10명이 처형당한 곳이다. 그 중 이성례 마리아의 사연이 애절하다. 다섯 명의 자식들과 옥에 갇힌 이성례는 세 살짜리 막내가 빈 젖을 빨다가 옥에서 굶어 죽고 말자 다른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일시 배교하고 옥을 나간다. 하지만 아이들이 동냥 나간 사이 스스로 옥으로 돌아왔고 네 형제는 옥에 찾아가면 자신을 때문에 부모들이 배교할 것을 우려해 동냥을 해가며 살아간다. 어머니가 참수되기 하루 전 어린 형제들은 동냥한 쌀과 돈 몇 푼을 가지고 사형 집행인에게 찾아가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단칼에 베어줄 것을 부탁한다. 이렇게 순교한 이성례는 배교한 사실 때문에 성인으로 시성되지 못해 9명이 성인으로 기려지고 있다. 순교성지에는 당고개 성지와 조형물, 이해인 수녀의 시비가 있다. 성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

▷주소: 서울 용산구 신계동 56번지(내비게이션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입력)
(문의: 02-711-0933)
홈페이지: www.danggogae.org



■ 새남터기념성당

▷새남터는 서소문밖 성지와 함께 조선 초기 군사들의 연무장이며 국사범들을 처형하던 곳이다. 대표적으로 사육신(死六臣)의 처형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천주교의 4대 박해(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오박해, 병인박해) 동안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던 땅이기도 하다. 열한 명의 성직자들이 순교했고,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 김대건이다.

새남터는 한국천주교회가 1956년 매입하여 '가톨릭 순교성지'라 새긴 현양비를 세운 곳이다. 국철을 타고 한강철교를 건너다 보면 대교 북단 서쪽으로 한국 전통식의 뽕죽한 종탑이 있는 3층 기와건물을 볼 수 있다. 현재 새남터에는 김대선 신부와 앙베르 주교, 모방 신부 등 9명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주소: 서울 용산구 이촌로 80-8
(문의: 02-716-1791)
홈페이지: <http://saenamteo.or.kr>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가능, 명절연휴와 매주 화요일 휴관.



故김사무엘 선교사 10주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일생 바친 순교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0-21). 이 말씀은 김사무엘 선교사의 생전의 소망이었다.

말씀대로 그는 죽음의 유익을 증거하며 2004년 2월 하늘나라로 갔다.

김사무엘 선교사의 10주기를 추모하며 문막 온누리동산과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추모예배를 드렸다.

아낌없이, 쏟은 선교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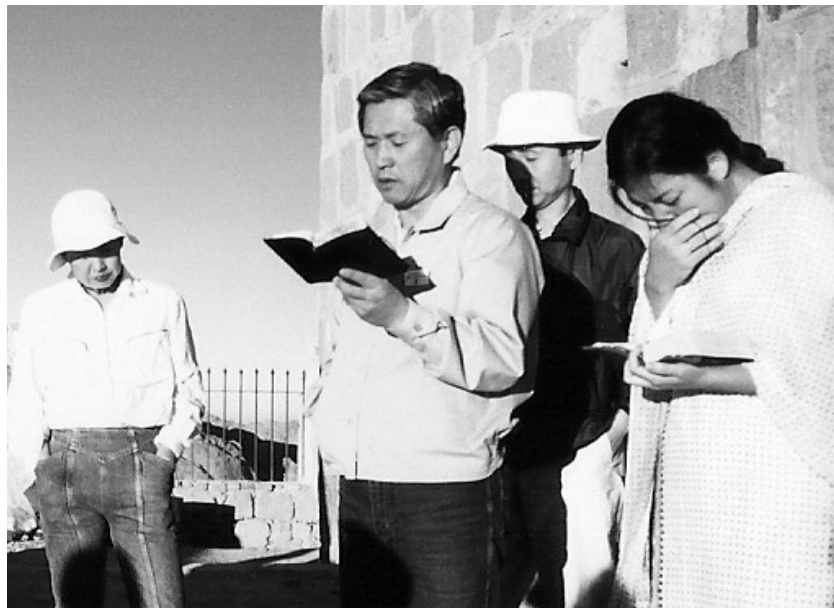
김사무엘 선교사는 35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일본 땅으로 부르셨다. 부르심에 순종해 신학 공부를 마치고 1983년 C&MA 교단으로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그는 도쿄 시부야 교회, 요시카와 복음교회, 이치카와 복음교회, 센겐다이 교회, 나

리타 복음교회, 아치요 복음교회, 기후 열라이언스 교회 등을 개척하며 선교에 열정을 쏟았다.

1993년부터 95년까지 중국 선교사로 언어 훈련과 교회 리더십 훈련을 담당했다. 1995년 7월부터는 온누리교회 선교총괄목사로 사역했다. 일본에 비전교회를 세우는 데 큰 힘을 보탰다. 일본에서 멈추지 않고 북한과 중국을 다니며 지경을 넓혀 갔다. 2003년에는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이라크에 들어가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에 온 힘을 쏟던 그는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하늘나라로 떠났다.

김사무엘 선교사의 순교는 온누리교회 Acts29 비전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선교의 헌신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 순전한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그의 영성이야말로 한국 교회 또 하나의 유산으로 남았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깊이 뿌리 내렸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고 김사무엘 선교사는 일본, 중국, 이라크 등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2004년 소천했다.

온누리교회 순교일지

2000년 새해 첫날, 중국으로 파송된 박승철 선교사가 순교했다. 뜻밖의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박승철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첫 순교자다.

2004년 김사무엘 선교사가 박 선교사의 뒤를 따른다. 같은 해 국내에서도 순교자가 생겼다. 이태화 형제가 경남 하동에서 아웃리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순교했다. 2005년 6월 중국에서 사역하던 권소망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곁으로 갔고, 같은 달 창조과학회 1호 선교사이자 온누리 파송선교사 전광호 선교사도 순교했다. 2006년에는 최보라 선교사가 순교했다.

온누리교회 사역 소개 2

영혼 구원의 열정 불태우는 ‘전도사역’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사역이다.

온누리교회는 ‘맞춤전도집회’, ‘열린새신자예배’, ‘군선교’, ‘결혼전도’, ‘병원사역’, ‘전도훈련’ 등으로 전도하고 있다.

특히 맞춤전도집회는 초신자 전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전도의 꽃이다. 특정대상자들을 위한 문화전도집회 형식의 집회다. 현재까지 남성(30~50대), 여성(30~50대), 의사, 간호사, 선생님, 임산부, 외식업종사자, 클래식음악인, 트위터사용자, 군장교, 국내거주외국인(일본인/몽골/네팔), 15세대, 65세 이상 부모,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온누리교회에는 새신자와 초신자를 위한 열린새신자예배가 따로 있다.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통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전도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전도를 돕는 다양한 훈련도 있다. ‘온누리 전도학교’,

‘전도폭발훈련’ 등이 바로 그것이다. 65만 군장병의 복음화를 꿈꾸는 군선교, 환우들을 복음으로 위로하는 병원사역, 가정의 중요성 깨닫도록 돕는 결혼전도 등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전도하고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나도 전도 하고 싶어요!

▶ 예배참여: 열린새신자예배

서빙고와 양재 캠퍼스에서 매주일 저녁 7시에 열린다. 예배 후 새신자 등록과정을 밟을 수 있다.

▶ 사역참여: 군선교, 병원사역

1) 군선교

- 군 장병 복음화 위한 기도모임과 전도집회, 세례식 및 파송예배를 드리고 있다.
- 군 입대 자녀와 부대, 군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이 있다.

(매주 화요일 19:30, 서빙고 선교관 101호) / 문의: 02-3215-3214

2) 병원사역

- 환우들과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심방하는 사역이다. 병원심방, 호스피스, 삼성병원 사역이 있다.

문의: 02-3215-3177(서빙고), 02-570-7433(양재)

▶ 훈련참여: 온누리전도학교, 전도폭발, 호스피스학교, 발반사·미용스쿨

1) 온누리전도학교

- 생활전도를 배운다. - 5분 전도훈련 성도반(10주)과 사역자반(4주)이 있다.

2) 전도폭발훈련

- 평신도를 생활 속 전도자로 훈련시킨다. - 전도와 교제, 제자훈련이 함께 진행된다.
-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학기별 한 단계씩 진행된다.

3) 호스피스학교

- 죽음을 앞둔 환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 자원봉사자 훈련하는 호스피스 학교, 발반사·미용스쿨, 학술세미나가 있다.
- 중보기도팀, 정기에배팀, 전도팀 등으로 섬길 수 있다.

〈전도훈련에 참여하세요〉

훈련내용	한줄소개	팀장 문의
온누리전도학교	생활전도를 배우는 학교(3월, 9월)	(서)문쌍찬 010-4572-7373 (양)송영봉 010-9001-6243
전도폭발훈련	평신도를 전도자로 무장시키는 훈련(3월, 8월)	(서)이태열 010-8891-9780 (양)심제현 010-7111-0717
호스피스 학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발굴훈련(3월-일반반, 9월-심화반)	김석순 010-5225-3474
발반사 스쿨	발마사지를 통한 전도훈련 (6월, 10월)	010-5252-1531
미용 스쿨	미용을 통한 전도훈련 (6월, 10월)	010-6582-2729

|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

20번째 쓰는 러브소나타

일본 최남단 항구도시 ... 간문교(關門橋), 복어 유명
벌써 집회준비 한창, 9백여 교회에 홍보전단 배포

통산 20번째 러브소나타가 시모노세키에서 개최된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5월 14~15일 열리는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를 3월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모노세키 현지는 벌써부터 러브소나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9월 실행위원회를 조직했고, 야마구치현을 포함한 주고쿠지방 5개 지역과 규슈 3개현의 9백여 교회에 러브소나타 홍보물을 전달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21일 첫 실행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열린 모임에는 김경훈 목사(러브소나타 본부)를 비롯해 윤영섭 장로 등 24명이 참석했다.

일본 최남단 항구도시

시모노세키는 일본 혼슈(본토섬) 최남단

에 위치한 작은 항구도시다. 야마구치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교회는 24개가 있다.

시모노세키는 예로부터 육로와 해로가 발달해 일본의 교통상업 중심지로 변형했다. 도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조선시대 사 람들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지나 일본에 들어왔다.

일본의 6대 무역항구 도시 중 하나이며, 복어 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시모노세키는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에게 슬픔을 안겨 준 곳이다. 청일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일본이 시모노세키에서 청나라와 ‘시모노세키조약(청·일양국강화조약)’을 체결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 조약으로 당시 일본은 조선과 동남아에 대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불만한 곳도 많다. 간문교(關門橋)가 손꼽

힌다. 간문교는

일본 혼슈와 규슈 사이의 간문해협을 횡단하는 다리다. 1973년 개통한 현수교는 시모노세키의 상징이다. 각종 해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가라토시장도 명물이다. 아카마신궁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1185년에 건립된 아카마신궁은 조선 통신사의 객관으로 사용되었다.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가 남아있다.

한편 11월 13~14일에는 오바히로에서 러브소나타가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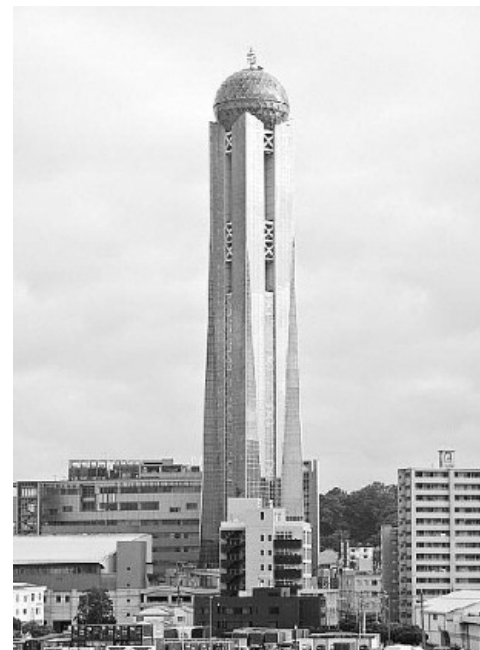
/ 정현주 기자 joo819@onnuri.org

〈러브소나타 간사 모집〉

자격: 일본어 가능한 성도

일본선교에 헌신한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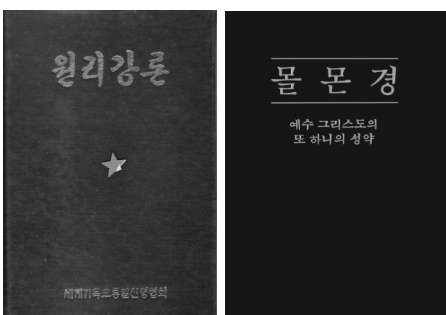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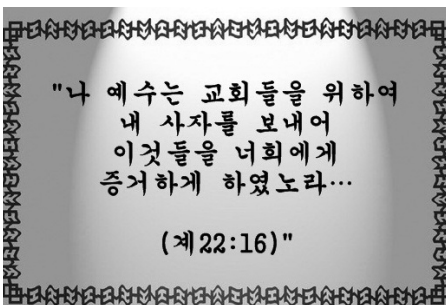
문의: 02-3215-3717



시모노세키 명물 가이쿄유메타워. 가이쿄유메는 ‘해협의 꿈’이란 뜻이다.

신년기획 - 이단 바로알기 5

이단들의 특징



이단은 성경구절을 자신들의 비성서적인 교리를 합리화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이단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신격화시키고, 비성서적인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효과적 인 포교와 성장을 위해 친사회적인 이미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비기독교인들의 공신력을 얻어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최근에는 가정의 가치 옹호, 친사회적인 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서를 임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합리화를 시도하고 비성서적인 교리를 통해 전통적인 신앙에 혼란을 초래한다. 그들은 자신들 만이 참된 기독교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강조한다. 또한 신도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성서를 이용한다.

그들은 한국에 자칭 재림 그리스도 혹은 보혜사 성령이 있다고 주장한다. 성서에 따르면 보혜사는 곧 예수이고 성령이다. 하지만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한다. 그의 저서 표지에는 ‘증인 이만희 보혜사’, ‘보혜사 이만희 저’라고 되어 있다. 또 그들은 재림주가 구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간 육체로 온다고 주장한다. 그 육체는 이만희를 가리킨다.

하나님의교회도 설립자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른다. 그의 아내 장길자는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신부’, ‘예루살렘 어머니’로 신격화한다. 안상홍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온 산에 선 어린양이며, 말씀 속에 새 이름이 바로 안상홍이라고 주장한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단들은 성서보다 자신들의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교는 〈물론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언약’이라고 믿고,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성서의 완벽한 해설서라고 주장한다. 신천지 이만희는 저서 〈천국비밀계시〉 머리말에서 자신의 주장이 불안정한 성서를 완전하게 만드는 마지막 계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천지 성서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이며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이 오늘날의 새 언약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교회에서는 자신들의 교리가 ‘새 언약’이고 성서는 ‘옛 언약’이라고 주장한다. 안상홍은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완성시킨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저서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이라고 주장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14만 4000명이라는 숫자는 이단들이 신도들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신천지는 자신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증거장막’이라고 주장하며 성도 수가 14만 4000명이 되면 왕과 제사장이 되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다. 신천지가 비정상적인 포교 활동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교회도 이 숫자를 하나님의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이단 교주들은 신약에서 언급된 ‘동방’이 한국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한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한 곳이 한국이며, 일곱 금 촛대(계 1:20)가 있는 신천지에서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교회도 예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한 곳이 한국이라고 주장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해 동편이 한국이라고 해석한다.

최근 신천지는 성서에서 101가지의 궁금한 내용들을 담은 〈궁금증 유발 멘트〉라는 책자를 포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성서의 의문을 풀어 주기 보다는 포교 대상자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단들의 임의적 비유 해석은 이단 교리에 관심을 갖게 하는 미끼이다.

*** 이 글은 이단문제 전문가 탁지일 교수가 저술한 〈목회와 신학 총서〉에 실린 내용을 발췌 및 요약했습니다.**



알기 쉬운 신학강좌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다이어트는 ‘탐식’ 때문에 생긴 비만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은 즐거움이지만 탐식은 신앙적으로도 문제다.

교회 전통에서 탐식은 교만, 정욕, 탐욕, 질투, 나태, 분노와 함께 7가지 대죄(deadly sin)로 간주된다. 흔히 탐식하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급하게 먹는 것, 게걸스럽게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건강에도 그렇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치스러운 식사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껏 먹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 아닌가? 잘못이면 안 되겠지만 과식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삶의 풍광이다. 가끔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죽을 죄인가?

탐식이 대죄인 이유

탐식이 대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탐식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탐식하는 자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롬 16:18). 여기서 ‘섬기다’의 헬라어 ‘돌류오’는 ‘종노예가 되다’라는 뜻이다. 재물과 탐식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탐식은 또 다른 죄들을 낳는다. 탐식은 신체의 또 다른 구멍들(orifices)의 죄와 연계된다. 일명 ‘탐식의 딸들’이라고 한다. 지나친 웃음, 적절치 못한 웃음, 무례함, 성적 부정함, 수다스러움, 우둔함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하면 쉽게 웃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거침없이 떠든다.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싸우기도 한다. 성적 방탕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탐식 VS 잔치

인류 최초의 죄는 탐식 때문에 저질러진 죄였다. 하와의 범죄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죄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위였다. 탐식이 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본 욕심이 먹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탐식의 댓가는 참담했다.

탐식이 대죄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탐식을 위해 이웃을 짓밟기도 하고, 이웃의 배고픔에 무관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탐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상으로 치명적인 죄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게 만든다. 성경은 탐식이 아니라 잔치를 말한다. 잔치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관계를 회복되었음을 기념하는 축제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먹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마 9:20:21).

이 말씀은 언제 보아도 감동적이다. 혹자는 여인의 믿음을 가려져 ‘저스트 터치’의 믿음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믿음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한 번만 비벼 주면, 아니면 여인처럼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기도 응답을 즉각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전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처럼 말이다.

하지만 부정한 혈루증 환자라는 당시의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무리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겹옷에 손을 댄 여인의 믿음은 결코 버튼 하나만 눌러댄 단순하고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다. 여인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여인은 어떻게 겹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혈루증이 나으리라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에게 겹옷이 특별하고 소중했던 이유는 겹옷의 네

귀에 달린 ‘술’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겹옷을 지을 때 술을 달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는 그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민 15:38-40).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경건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옷단 술을 이용했다. 때로는 술을 너무 길게 늘어뜨려 땅에 질질 끌려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 밟히는 경우도 있었다.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바로 이 옷단 술을 길게 늘어뜨린다는 것이다.

혈루증 여인은 왜 예수님의 겹옷에 손을 댄 것일까? 여인은 바로 겹옷의 네 귀퉁이에 달린 ‘옷단 술’을 만진 것이다.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랍비 문헌에는 이런 말이 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겹옷에 달린 옷단 술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영적인 상징물이었다. 마치 오늘날 십자가가 마귀를 쫓는다고 믿는 것처럼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겹옷의 옷단 술이 영적인 에너지

겹옷과 계명의 아들

가 있다고 믿었다.

랍비 문헌의 ‘온전한 자’는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의인’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옷단 술에 손을 대는 행위야말로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가장 확실한 투지와 모험이 아니었겠는가!

〈열린다성경아카데미 불학기 강좌〉

일시: 4월 7일-6월 11일(매주 월, 수, 총 10회)

과목: 성서히브리어(월-오전), 구약심화과정(월-오후)

신약심화과정(월-저녁), 성서지리&고고학(수-오전),

성막성전절기(수-오후)

문의: 김주희 간사(010-4902-1022), www.openbiblekr



내 인생을 바꾼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송영범 장로

미션스쿨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매주 월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일게 되었다. 당시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도 없었다. 그저 예배와 말씀이 좋고, 찬양 드리는 것이 좋았다. 아무 저항감 없이 기독교 문화에 젖어들었다. 중, 고등부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교회생활을 이어 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는 수요일 채플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생활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모태신앙인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매일 함께 교회에 출석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 새 교회를 찾던 중, 반포의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개척교회였는데 모든 성

도들이 한 식구처럼 지냈다. 특히 성가대원들 간의 유대는 대단했다. 그들과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부지런히 찬양연습을 하고 주일예배를 섬기게 되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어렵듯이나마 알게 되었다. 구원에 대한 소망도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의 확신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부흥강사를 초청한 집회에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뵈나다’를 찬양하는데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보였다. 누더기 옷을 입은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이 애처로웠다. 그렇게 한없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영범아! 너는 내가 나의 핏 값으로 산 나의 아들이란다”
예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안개 속과 같던 믿음

“내 핏 값으로 산 나의 아들이야”

이 바뀌었다. 예수님께서 값을 길 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날 이후 믿음의 실체가 명확해졌다. 나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구원의 확신으로 불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지금도 힘들고 지칠 때면 당시의 감격을 되새기며 새 힘을 얻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언제나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면에 이어〉

주일강단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두 번째 비유는 새 옷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36절).
당연한 일입니다. 헌 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을 찢어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 옷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종교적 울타리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등의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 문화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헌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가장 심각한 갈등은 헌 옷을 벗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구약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율법의 정신과 원리는 남아 있지만 구체적인 문화는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헌 옷에 매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익숙한 문화의 옷을 잘 벗지 못합니다. 예배도 하나의 헌옷이 되어서 잘 바꾸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형성된 문화의 옷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 옷을 입을 수 있는데 헌 옷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옷이기 때문에 새로운 옷으로 계속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입었던 문화의 옷이 있고, 다음세대가 입는 문화의 옷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입고 있는 금식이라는 헌옷은 과거에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금식이 종교적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헌 가족부대, 생명 없는 종교적 울타리

세 번째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족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37~39절).
여기서 새 포도주는 엄밀하게 말하면 포도즙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그듯이 유대사회는 집집마다 포도즙을 담갔습니다. 포도를 따서 틀에 놓고 밟으면 즙이 나옵니다. 즙이 가족부대에 들어가도록 가족부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가족부대에서 발효가 되면 가스가 생깁니다. 가족부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스가 생기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 가족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가 생겨 팽창이 일어나면 버틸 수 없습니다. 부대가 터집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 가족부대는 생명 없는 종교적 울타리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적 울타리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종교질서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임재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울타리가 그분의 임재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조직, 제도, 문화는 문제를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직분과 제도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교회가 먼저 세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제 받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종교적 울타리 밖으로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그들을 찾아가 품으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의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병든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신은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은 병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보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치료하시도록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리를 초대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품고 안아주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2014년 아이스쿨 강좌안내

<서빙고>

일대일 양육자반- 일본어예배반
대상: 일대일 동반자과정수료, 온누리등록교인, 세례교인, 순예배참석
일시: 3월 2일~6월 15일 매주 주일 오전 8:20
장소: 본관 B102호
문의: 최민희 간사 02-3215-3702

일대일양육자반- 김형철목사반
대상: 일대일 동반자과정수료, 온누리등록교인, 세례교인, 순예배참석
일시: 3월 19일~7월 2일 매주수요일 오후 1:00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오예숙 집사 010-5572-0522

일대일 양육자반- 양천공동체
대상: 일대일 동반자과정수료, 온누리등록교인, 세례교인, 순예배참석
일시: 3월 20일~7월 3일 매주목요일 저녁 7:30
장소: 가양동 한터화관
문의: 한종철 집사 010-3755-8482

18기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주간/저녁반)
단계: 주간반 1~4단계 / 저녁반 1~2단계
주간반: 3월 4일~6월 17일(매주 화) 오전 10시
저녁반: 3월 5일~6월 18일(매주 수) 저녁 7시 반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외
회비 : 7만원/ 하나 573-910008-84705
온누리 전도폭발
문의: 팀장 이태열(010-8891-9780)

<양재>

성경통독학교 I (이기진 목사)
일정: 3/8 ~ 5/24 매주(토) 오전10시
장소: 양재 화평홀
회비: 3만원(당일 4만원)
문의: 02-570-7433

일대일양육자반-황종연 목사반
개강: 3월 9일
시간: 매주일, 오후 2시
장소: 강의동 201호
문의: 02-570-7349

전도폭발훈련 1단계
일정: 3월2일~6월1일 매주(일) 오후1시30분~
장소: 양재 강의동 202호

문의: 02-570-7433

전도폭발훈련 2단계
일정: 3월2일~6월1일 매주(일) 오후1시30분
장소: 양재 강의동 206호
문의: 02-570-7433

전도폭발훈련 3,4단계
일정: 3월2일~6월1일 매주(일) 오후1시30분
장소: 양재 강의동 207호
문의: 02-570-7433

성경일독학교
일시: 3월 7일~6월 20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10~14:00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오정란 사역자 02-570-7457

무릎선교기도학교
기간: 3월 13일~5월 29일
장소: 화평홀,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회비: 3만원
문의: 02-570-7277

나눔이 있는 QT카페(3기)
기간: 3월14일~5월 2일
장소: 드림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회비: 3만원
문의: 02-570-7277

<강동>

강동 OBC(로마서)
일정: 3월2일~4월 20일 매주 주일 오후 2시
장소: 11층 두란노홀
문의: 02-475-9686

일대일양육자반-성종원목사반
일정: 3월11일~6월 24일 매주 화 오후 7:30
장소: 11층 두란노홀
문의: 02-475-9686

<부천>

무릎선교기도학교
일정: 3월18일~06월10일 매주 화 오후 12:20
장소: 드림홀
문의: 함명희 010-2360-5173

OBC 세미나 개강

<서빙고>

날 짜	요 일	과 목	시 간	강 사
3월4일(8주)	화	요한복음	10:00~12:30	손정훈 목사
3월4일(8주)	화	하나님의 성품	19:30~22:00	서재범 목사
3월6일(8주)	목	갈라디아서	10:00~12:30	김형철 목사
3월6일(8주)	목	갈라디아서	19:30~22:00	최성석 목사
4월29일(8주)	화	하나님의 성품	10:00~12:30	박형준 목사
4월29일(8주)	화	요한복음	19:30~22:00	허원희 목사
5월1일(8주)	목	로마서	10:00~12:30	박철웅 목사
5월1일(8주)	목	로마서	19:30~22:00	노치형 목사

화요일 문의 010-8627-2098 목요일 문의 010-5249-9024

<양재>

날 짜	요 일	과 목	시 간	강 사
3월13일(9주)	목	하나님의 성품	19:30~22:00	김현실 목사
3월11일(10주)	화	요한복음	19:30~22:00	이정환 목사
3월13일(8주)	목	로마서	10:00~12:30	김상수 목사
3월11일(8주)	화	갈라디아서	10:00~12:30	김요성 목사

문의: 570-7447